



## 한·아세안 FTA 10주년

아세안 창립 50주년과 10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교류 평가

# ASEAN





아세안 출범 50주년  
한-아세안 FTA 10주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의 미래

#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행사

10th Anniversary of ASEAN-ROK FTA

2017년 6월 1일(목) |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 행사 세부 일정

10:00 ~ 11:20 10주년 기념식 · 부대행사

13:00 ~ 15:00 무역 · 투자 설명회

15:30 ~ 17:30 경제 협력 세미나

※ 행사 참석자에게는 오찬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옷과 집은 안사도 먹을 것은 아끼지 않는다.

### p6 글로벌 트레이드 이슈

지난 2016년 25.8%의 엔겔지수를 기록한 일본인들의 최근 소비패턴입니다.  
전체 소비지출은 감소했지만, 식품지출은 오히려 증가했죠.  
전문가들은 소비증세,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식품 단가 상승, 인구 구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 폐허가 된 고대 도시에 캄보디아란 나라가 있다. 혹자는 로마인들이 세웠다고 하고, 혹자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다고도 한다.

### p18 도시를 훑치다

16세기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을 방문한 선교사 리바드네이라의 말입니다.  
당시의 유럽인들은 동방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민족이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세웠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세기 정글에 묻혔다가 500년 뒤 그 비밀스런 얼굴을 내민 도시,  
숨겨진 황금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씨엠립을 만나봅니다.

**“해커들이 수출입 업자가 이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장기간 서치해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 뒤 해외에 개설한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무역대금을 가로챍니다.”**

### p26 무역현장이야기

지난 10년간 일어난 스피어피싱 사건 가운데 검거된 사례는 단 3건 정도로,  
범인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을 만나  
점점 늘어나는 무역 사기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Contents

MAY 2017 vol.60



아세안(ASEAN)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8월 8일 방콕 선언에 의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동남아 10개 국가로 구성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 6억 명, 2조 3천 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은 올해 2017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 COVER STORY

2017년은 한·ASEAN FTA 10주년이자, ASEAN이 지난 1967년 창립한 지 50주년 되는 해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총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 전 세계 교역량의 7%를 차지한다. 세계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아세안 시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돌파구로 전망된다.



## FTA BRIEFING

01 이달의 FTA 브리핑

## ISUUE FOCUS

- 04 카드뉴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06 글로벌 트레이드 이슈
- 08 중소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집 발간 외

## FTA CARTOON

10 민대리의 뱀짓여행

## COVER STORY

한·ASEAN FTA 10주년

- 1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며
- 14 한국은 아세안 '최적의 파트너'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인터뷰

## FTA & LIFE

- 18 도시를 훑는다: 캄보디아, 씨엠립
- 20 스타벅스를 이긴 캄보디아의 브라운 커피

## FTA WIKI

- 22 FTA 용어사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인증

## MEET

- 24 FTA 활용기업 탐방: (주)대덕기업
- 26 무역현장스토리: 서울 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 FTA PRACTICE

- 28 우리나라의 FTA History: 한·터키 FTA
- 30 중국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인증제도에 대비하기
- 32 중국 IP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Chivas Holding vs. Yantai
- 34 FTA 초보자를 위한 기초 활용 노하우: HS 코드 확인하기
- 36 사례로 배우는 실전 FTA 활용법: 관세 적용의 우선순위

## FTA NEWS

- 38 제12차 한중일 FTA 협상 개최 외

## BOARD

- 40 FTA 행사 및 해외 전시 일정 정보 & 독자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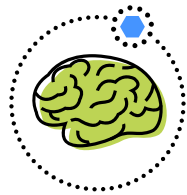


##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7년 5월 1일(통권 60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혁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영화 속에서만 들어본  
단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입니다.

### 1차 산업혁명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

### 2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의 본격화

### 3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

**다음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세상을 바꿀  
산업혁명**

로봇과 인공지능(AI)를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고,  
이것으로 사물을  
자동·기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구축 가능한  
산업의 극적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독일**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조업의 ICT화** 관련 장기적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신생국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혁신 상위권 국가로  
외국인 노동력 대체 수단으로 산업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ICT 서비스 수출경쟁력과 기술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632**억 달러 → **767**억 달러  
2012년 → 2016년

(우리나라 신성장산업 수출액)

우리나라 신성장산업 수출은  
**연평균 5% 증가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분야**에서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산업에 적합한  
**유기적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변화는  
한 가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Food]

## 옷과 집은 안 사도, 음식은 사는 일본인

지난 2016년 일본의 엔겔지수가 25.8%라는 발표가 나왔다. 한달 소비지출은 28만 2188엔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했지만, 식품지출은 7만 2934엔으로 오히려 1.5% 증가했다. 또 품목별로 의류와 신발, 주거 등 주요 항목 지출은 줄어들었지만 보건의료, 교육, 식품 지출은 증가했다. 일본의 엔겔지수는 2013년까지 20년 동안 23%대에 머물렀지만 2014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소비증세,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식품 단가 상승, 인구 구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그 배경으로 꼽힌다.

### 즐겁게 먹는 식사 문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일본종합연구소는 가구 구성원이 줄어들어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이 비효율적라고 지적한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즐겁게 먹는 식사(음식의 레저화)'에 중점에 두는 경향이 짙어진다고 분석했다. 엔겔지수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생활이 어렵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일본은 요리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료품 지출이 많아져 엔겔지수가 높은 상태라 볼 수 있다. 또 일본의 인구 감소로 절대적 식료품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식생활과 지출규모의 변화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볼 수 있다.

### 간단하고, 건강하며, 새로운 맛에 관심

간편성과 범용성을 중시한 식품은 육아 중인 주부나 직장인, 1인 가구 등이 많이 찾는 추세로 2017년 신상품으로 조리시간을 단축한 제품이나 도시락용 제품이 많이 등장했다. 건강함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도 인기다. 미용식으로 인기가 높은 슈퍼푸드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마루젠식품공업의 레토르트 잡곡수프 '세계의 수프로 먹는 슈퍼 푸드'는 슈퍼푸드인 퀴노아와 치아씨드, 아마란사스와 찹보리를 함유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 고유의 음식인 에스닉 푸드의 인기도 대단하다. 토우카이쯔케모노에서 기간 한정으로 '오이 큐 짱 파 쿠치맛'을 발매했는데 파쿠치(한국명 고추, 미나리와 식물로 특이한 향과 맛이 남)는 일본에서 전문 요리점이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미즈칸은 양파를 사용한 식초 '다마네기풍', 아사히음료는 '우유로 즐기는 칼피스 부드러운 믹스베리' 등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맛의 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 엔겔지수(Engel's coefficient)란?

일정 기간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써, 가계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엔겔은 연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가계 소비의 특징을 발견했다.



[Smart glasses]

## 스마트 안경이 온다

### 새로운 웨어러블 기술의 탄생

현재 웨어러블 시장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밴드가 주도 중이지만, 이들의 성장세가 점차 느려지면서 전체 웨어러블 시장의 점유율이 75%에서 2021년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틈을 파고들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했는데 바로 스마트 안경이다. 독일 자이스(Zeiss), 이스라엘 루무스(Lumus) 등의 새로운 기술과 이탈리아 룩소티카(Luxottica) 같은 아이웨어 명가의 대규모 투자가 결합돼 스마트 안경의 품질, 사용성, 가격, 디자인이 개선되면서 전통적인 안경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텍 교수이자 구글 글라스 개발의 일원이었던 태드 스타너(Thad Starner)는 스마트 안경이 존재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술 전망을 제시하면서 실생활에서 웨어러블 기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청각 장애인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특정 질병 등을 탐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카드사 비자와 애플의 준비 자세

글로벌 카드사 비자(VISA)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SXSW(South by Southwest) 페스티벌에서 지불결제 가능한 스마트 선글라스 프로토타입을 선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자가 선보인 이 제품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s: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에서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 비자는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의 스마트 선글라스에 대해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는 현재 주요 은행 및 여러 브랜드 회사들과 다양한 방향으로 제휴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한편 글로벌 미디어 기업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애플 역시 현재 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스마트 안경이라고 보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애플이 AR(증강현실) 카메라 앱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AR기반의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



한국경제신문

했다. 애플이 개발 중인 스마트 안경은 현재까지 초기 실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무선으로 아이폰과 연결돼 사용자가 A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혀졌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현재 잠재적 부품 공급사들과 논의 중이며 한 협력관계의 회사로부터는 테스트를 위한 스마트 안경용 디스플레이를 일부 주문했다고 말했다.

### 현재까지는 디자인이 기술보다 매력적 요소

현재 미국에서 출시되는 스마트 선글라스나 안경 제품에는 아직까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다. 선글라스나 안경에 기존에 활용되는 기술을 접목시키는 수준이다.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사업을 하는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는 미국에서의 전략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안경을 쓰고 싶게 만들기 위해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가장 힘썼으며, 최근의 성공사례를 전했다. 글로벌 조사기관 인터네셔널 데이터(International Data)의 수석 연구 분석가 역시 현재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데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기술은 디자인 후에 따라오는 요소로 치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리 박주연 기자 | 자료 KOTRA





## 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활용길 쉬워진다

관세청은 한·중 FTA활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는 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로써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의 FTA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직접운송원칙:**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송 중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음.

**비가공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제3국에 있는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로써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로 사용됨.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직접운송' 인정범

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換積)될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단, 상품의 품명·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이 초과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의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한 후 해상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積入)될 경우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컨테이너 화물은 적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수출자가 홍콩세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관세청은 복잡한 행정절차<sup>1</sup>가 간소화되고, 비가공증명서 발급 비용(연간 165억 원<sup>2</sup>)도 대폭 절감되어, 한중 FTA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㉔

<sup>1</sup> 화물명세서 등 7종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품 도착 1일 전까지 신청

<sup>2</sup> 연간 비용절감액(165억 원): 11만 6천 원(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 × 142,315건('16년 비가공증명서 발급건수(2,076) + '16년 발급예로에 따른 미신청 추정건수(140,239))

중소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집 발간

## 업종·협정별로 볼 수 있는 FTA 활용 실전 노하우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신규 시장을 진출하면서 겪은 사례를 간추려 '2017 FTA 활용 성공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한·중 FTA를 활용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한·아세안 FTA보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된 한·베트남 FTA 활용을 통해 관세 절감을 받은 사례 등 29개 사례를 협정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으며, 첫 번째 챕터는 13개 사례의 한·중 FTA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챕터는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와 관련한 9개의 사례를 보여준다. 스타트업 기업, 외투기업, 한국산 유자차 제조 기업, 떡볶이, 첨단신소재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소개하

며,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법, FTA 컨설팅 등 여러 방법의 FTA 활용 사례를 다채롭게 소개한다.

### 성공사례 #1

전자소재업체 D사는 2016년에 중국 난징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현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와 FTA원산지증명서를 중국해관에 제출했으나 해관 측에서 품목분류에 차이가 있다며 특혜관세 적용을 거절하고 통관도 보류했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과 증빙서류를 해관에 제출,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 성공사례 #2

베트남에 매장을 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인 N사는 한국에서 제조한 치킨 소스를 수입하고 있었다. N사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소스류에 대한 관세인하를 받으려고 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포기했다. 하지만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컨설팅을 통해 한·베트남 FTA 협정을 적용하여 지난해 약 16만 달러의 세액 절감효과를 거뒀다.

사례집은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자료실을 클릭하면 FTA Ebook 항목에서 '2017 FTA활용 성공사례집' PDF를 다운받을 수 있다. 김상모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FTA 활용 성공사례가 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무역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점"이라고 하며, 사례집을 적극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㉕

글 박주연 기자



## 민대리의 땀겨 여행

당신의 손끝에 담긴 PEACE



★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예절 말레이시아는 두 손을 잡고 가슴에 가볍게 닿게 하는 것이 인사법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 신자가 많은데, 무슬림과 명함을 주고받을 땐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땐 정치, 종교적 내용보단 문화, 요리 등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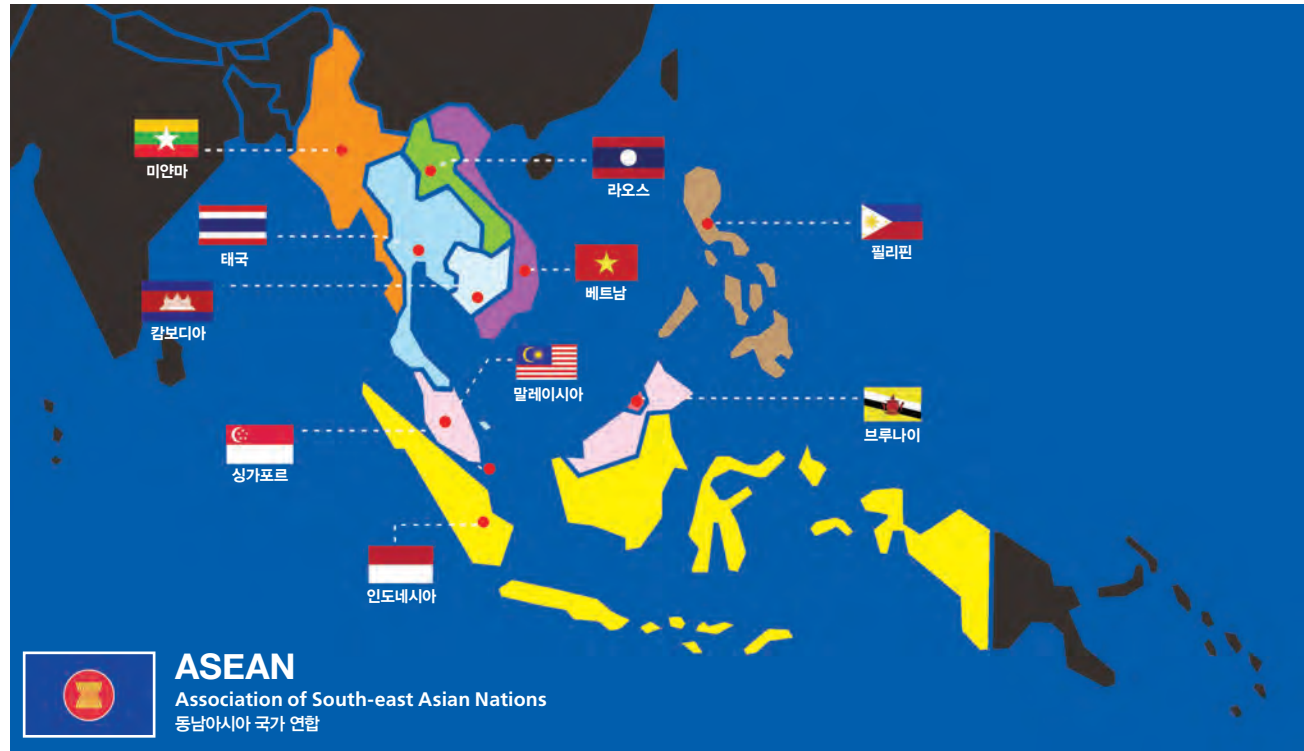
## KOREA-ASEAN FTA 10<sup>th</sup> Anniversary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은 아세안 '최적의 파트너'

-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인터뷰





## 아세안, 아시아의 유럽연합(EU)을 꿈꾸다

올해 8월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지난 1967년 창설된 지 정확히 50주년 되는 때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총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지역통합의 극치(極致)라고 할 수 있는 EU(그 기원은 1951년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이른바 ECSC)와 비교해도 결코 그 역사나 의의가 부족하지 않다.

### 아세안의 창립 배경과 과정

최근 브렉시트 여파로 그 위상에 흠집이 가긴 했지만 EU는 명실 공히 현존하는 지역통합체 중 가장 이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역내관세 철폐는 물론,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 간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30개에 가까운 회원국을 총괄하는 초국가적 기구의 존재는 가히 경이로울 정도다. 1946년 당시 영국의 수상이던 윈스턴 처칠의 그 유명한 취리히

연설에서 영감을 받아 51년 ECSC, 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67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를 거쳐 이윽고 1993년 지금의 EU가 탄생했다. 아시아의 EU라고 할 수 있는 약칭 아세안의 정식명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다. EU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추가 가입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형성한 것은 열 번째 회원국인 캄보디아가 가입한 1999년이지만, 아세안의 창립 배경과 기원은 한국전쟁 후 전 직후이자 냉전시대의 서막 즈음인 195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UN헌장 제8장 제52조 지역적 집단안정보장의 규정 및 동남아방

위조약에 근거하여 미국 주도하에 반공산주의 군사블록이자 집단 안보체의 성격으로 55년 동남아조약기구(South-East Asian Treaty Organization, SEATO)<sup>1</sup>가 결성되었는데 필리핀과 태국이 야심차게 주도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이 호응하지 않아 매우 불안정하게 운영되었다.<sup>2</sup> 이후 61년에 말레이시아가 합세하여 태국, 필리핀과 함께 동남아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ASA)을 창설했으며 이것이 발전적 해체를 통해 67년 8월 8일 방콕 선언으로 더욱 잘 알려진 '아세안 창립 선언'을 통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국이 지금의 아세안을 설립했다. 이어 84년에 브루나이, 95년에 베트남, 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99년에 캄보디아가 가입을 마쳤다.

이렇듯 아세안은 초기 반공주의에 대한 공동대응의 성격을 넘어 이제는 경제와 사회, 문화적 상호협력력을 확대·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성격의 협력기구로 발전했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해있다.

### ASEAN in the World

아세안은 2015년 기준 인구 약 6억 3,000만 명으로 세계 3위, 경제규모는 GDP 2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 총 GDP의 3.2% 수준이다. 교역량은 총액 2조 2,700억 달러(수출: 1조 1,800억 달러, 수입: 1조 800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7%를 차지한다. 무시할 수 없는 지표지만 아세안 역내 경제의 허약성, 특히 역내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는 아킬레스건이다.<sup>3</sup> 아세안은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를 성취하

여, 경쟁력 있고 공평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한 뒤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나 아직 회원국 간의 완전한 자유무역지대 설립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sup>4</sup>

단, 아세안은 아세안 전체차원과 회원국 개별 차원에서 대외적으로는 투트랙 FTA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세안 차원에서 FTA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3개국, 그 외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와 기체결 상태다. 개별국가 단위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FTA 정책을 활발히 펼치는 중이며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도 양자 FTA를 발효시킨 상태다.<sup>5</sup> 비록 미국의 탈퇴로 잠정중단 상태에 놓인 TPP이지만, 참여국 1/3 수준이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 표류로 주목받은 것은 중국 주도로 알려진 RCEP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세안 10개국이 RCEP 협상의 조타기를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전체보다는 회원 국가별 자주권과 국익을 우선하는 이른바 '아세안 웨이(ASEAN Way)'가 때때로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대목은 아세안의 공영, 발전 및 국제적 역할 제고를 저해할 수 있는 내재적 한계임에 틀림이 없다.

### 우리나라와 아세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89년도부터 이미 부문별 대화관계를 수립, 97년부터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관계를 이어왔으나 보다 본격적인 관계형성은 역시 2007년 양자간 FTA(상품협정)를 발효시킨 이후부터다.<sup>6</sup>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 및 투자의 증대, 관광과 문화 등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한·아세안센터가 설립된 것도 그 이후인 2009년이며, 이후 동남아시아는 한국에게 매우 친근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통상적 측면에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라는 신시장을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감으로써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의 선진기술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좋은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속에 아세안 시장은 매우 주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sup>1</sup>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및 중앙조약기구(Central Treaty Organization, CTO)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sup>2</sup>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특히 1960년대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간에 영유권 분쟁 갈등이 심해 지역 내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일이 많았다.

<sup>3</sup> 특히 역내 완전경제통합으로 가는 길목에 아세안 지역 내 경제 수준의 격차 외에도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는 특히 극복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아세안을 총괄하는 법적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34조에서조차 아세안의 공식 언어를 영어라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sup>4</sup>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화를 위해 회원국들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및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등을 내세워 노력 중에 있으나 아직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sup>5</sup> 한·아세안 FTA는 2007년,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그리고 한·베트남 FTA는 2015년 발효되었다.

<sup>6</sup>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 및 투자협정은 2009년에 발효되었다.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한 전략을 갖고, 철저한 현지화, 차별화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경제발전 전략과 경험, 노하우를 갖춘 한국은 아세안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6월 1일 1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다방면의 교류에서 양적, 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새로운 무역 전략이 필요한 지금, 아세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아세안센터의 김영선 사무총장을 만나 한·아세안 관계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에 대해 물었다.

### 한·아세안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가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투자 증진, 문화·관광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및 아세안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아세안 10개국 100개 식품 업체의 우수 식음료 제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아세안 무역박람회’,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연계성 강화를 지원하고, 각국의 인프라 비즈니스 기회를 국내에 소개하는 ‘아세안 연계성 포럼’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면에서도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유산 보전 교육,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현지 가정에서 생활하며 지역기반 관광을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더불어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우정을 키우는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국내 중학생들이 아세안과 한·아세안 관계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 등을 개최해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간의 FTA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무엇보다 지난 10년 간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FTA 체결 전인 2006년 320억 달러에서 2016년 745억 달러로 2배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56억 달러에서 301억 달러로 5배 증가했습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도 2006년 32억 달러에서 2016년 4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그러나 아직까지 낮은 개방 수준과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에 수출할 때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과정 간소화 등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교역 다변화를 위한 핵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FTA 추가자유화 협상,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활성화 조치를 통해 아세안 수출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 분야 외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문화, 인적 교류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은 2006년 303만 명에서, 2016년 600만 명으로 2배 증가하였으며, 현재 해외를 여행하는 전체 한국인의 3분의 1이 아세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인도 2006년 70만 명에서 2016년 221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국내에 거주하는 아세안인도 2007년 19만 명에서 2016년 48만 명(전체 28%)으로 2.5배 증가(출처: 행정자치부, 2007년부터 외국인통계 발표 시작)했는데, 이 중 20만 명이 노동자이고, 만 7천 명이 유학생입니다. 아세안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 기업에 입사해 이들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노동자들과 결혼이주 여성들은 국내에 아세안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이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의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동남아 전역에서 방영되면서 한국 연예인과 문화에 대한 아세안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고, 한국 화장품, 의류 등 한국 제품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체 교역국가에 대한 발굴이 시급합니다. 아세안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의미의 ‘포스트 차이나’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고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안의 자체 경제규모와 성장 속도 그리고 한·아세안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세안 10개국은 인구 6.4억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GDP 2.6조 달러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GDP 규모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고,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35세 미만 인구 전체 63%) 생산지점뿐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 4.5~5%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EU(1~2%), NAFTA(2~3%), 중남미권(2~3%) 등 타 경제권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와 발전 가능성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액은 2010년대 들어 이미 대중국 투자액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기준 대아세안 투자액은 50억 달러, 대중국 투자액은 33억 달러입니다.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과 자국 기업 선호로 인해 이미 노동집약산업과 제조업 등은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 휴대폰 공장의 생산량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넘어섰습니다. 또, 롯데, CJ 등 대형 유통업체와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들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아세안 국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아세안 각국은 경제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저개발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태국, 필리



핀, 인도네시아 등 중간 발전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신기술 확보를 통해 자체 산업력을 키우는 것을 중장기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경제발전 전략과 경험, 노하우를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best partner)'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출범한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의 통합이 심화되면서 더욱 치열해질 대내외 경쟁에 대비하고, 통합이 가져올 결실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도 산업 고도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아세안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발전은 아세안의 경제 건전성과 정치·사회 안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입니다. 한국 중소기업 비율이 전체 기업 수의 90%임을 고려할 때, 양 지역 간 경제관계 발전에 있어 중소기업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세안은 한국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기술을 배우려는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관광지로서의 단편적인 이미지 외에 개별 국가들의 국민성이나 산업구조에 대한 인지도가 꽤 낮은 편입니다. 한국인이 잘 알지 못하는 아세안 국가의 특징이나 최근의 변화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세안이 식음료, 농업, 천연자원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아세안 회원국들은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 제조업, 로봇산업 등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생산성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사청에서 열린 한·아세안 청년포럼



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센터는 변화하는 아세안 각국의 수요에 맞춘 무역투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스마트시티(인도네시아), 스마트 제조업(말레이시아), ICT(태국), 로봇산업(싱가포르) 분야에서 각국과 투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아세안 10개국들의 게임 상품을 전시하는 G-STAR 아세안 특별관(11월, 부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ICT(통신,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 등) 투자 진흥 세미나, 사물인터넷(IoT)을 주제로 한 한·태국 무역 활성화워크숍,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한 베트남 투자 사절단 파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한국과의 무역투자 및 문화교류가 기대되는 신흥 아세안 국가를 뽑으신다면요?**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젊은 인구,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소비 시장,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신흥 국가'로서 발전 가능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기대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대국이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고 인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 국내 유통, 화장품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높은 임금 경쟁력과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삼성, LG 등 국내 주요 제조업 공장이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 유통 기업들도 중국을 잇는 소비시장으로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광업계도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도로, 항만, 전기 등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세안 시장 진출 시 기업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핵심 성공전략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입니다. 글로벌한 전략을 갖되, 철저한 현지화,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지 관습과 언어, 그리고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 역시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로 출범하면서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산기지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별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아세안 전체라는 숲을 보고 전략을 수립하기를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여행지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발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발리는 '신들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상적인 여행

**“장기적으로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고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안의 자체 경제규모와 성장속도 그리고 한·아세안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 여주인공처럼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찾을 수 있고, 편안함과 정신적 안락함을 주는 곳이지요. 발리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절대 싫증나지 않는 여행지입니다. 아세안 10개국에서는 자연경관, 문화유산, 그리고 삶의 방식 등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매력이 넘쳐납니다. 아세안 어느 나라를 가도 다양한 종교, 언어, 민족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다양성 속의 통합'을 추구하는 이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한·아세안센터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교류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아세안센터는 2017년 아세안 창설 50주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며 올해 5~6월을 '아세안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각국 대표 음식, 커피, 차를 즐길 수 있는 '아세안 음식축제(6.1~4, 서울 코엑스)', △아세안 방문의 해를 맞아 50가지 스페셜 여행 패키지를 공식 발표하는 '한국국제관광전(KOTFA) 아세안 관광홍보 부스(6.1~4, 서울 코엑스)', △아세안 문화관광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3월~8월, 서울 및 경기), △아세안 열린강좌 시리즈(5.11~6.22, 서울),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6.15, 경기도 안산)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관계 조망 국제회의'는 전 세계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아세안의 지난 50년과 한·아세안 관계를 돌아보고, 한국의 대아세안 전략, 비전,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석학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내용을 엮은 서적을 출판하여, 11월 개최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헌정할 예정입니다. 출판될 서적은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비전과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의미가 큼니다.☺

글 김선녀 기자



캄보디아의 유적들을 찾아가는 전초 기지인 씨엠립은 프놈펜에 이어 캄보디아 제2의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앙코르 와트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반테아이 스레이는 붉은 사암을 사용해 불그스름하고 독특한 색채로 휩싸였는데 이곳의 별명은 '여인의 성채'다.

## 숨겨진 황금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도시

밀림 속에 숨어 있는 황금의 왕국. 많은 이들이 캄보디아를 이런 이미지로 떠올린다. 그 일등공신은 두 말 할 것 없이 앙코르 와트 유적이다. 씨엠립은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을 품고 있는 덕분에 작은 국제도시가 되었다.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툭툭 바이크를 타고 달리다 한적한 숲 속의 유적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곤 돌아와 석양 아래 차가운 맥주와 미국적 음식을 나누며 낯선 언어의 친구를 사귈다.

“폐허가 된 고대 도시에 캄보디아란 나라가 있다. 후자는 로마인들이 세웠다고 하고, 후자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다고도 한다.” 16세기 이곳을 방문한 선교사 리바드네이라의 말이다. 당시의 유럽인들은 동방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민족이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세웠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19세기 중반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혀갔고, 호기심 많은 지식인들이 비밀의 사원에 발을 들이밀었다. 특히 식물학자 앙리 무오가 글과 스케치로 전한 여행의 기록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솔로몬 왕의 신전에 버금가고 미켈란젤로처럼 뛰어난 조각가가 세운 앙코르 와트,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인이 세운 것보다도 더 장엄하다.” 그제서야 좀 더 제대로 된 찬사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의 유적들이 세계인에게 얼굴을 내밀기까지는 또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 믿기지 않는 아름다움,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

캄보디아 북서쪽의 도시 씨엠립 주변에는 방대한 유적군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앙코르 와트를 비롯해, 반테아이 스레이, 타프롬, 앙코르 톰 등 1천여 개의 사원과 건축물들이 흩어져 있고 지금도 새로운 발굴과 복원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802년부터 1431년까지 '캄부자' 왕조의 수도였다. 화려한 권세를 누린 왕들이 일곱 개의 도시와 천여 개의 사원을 세웠으나 13세기부터 쇠락하기 시작했고 15세기쯤에는 완전히 멸망하여 정글 속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오백 년 뒤에 불쑥 나타나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유적인 앙코르 와트는 씨엠립 국제공항에 내려 들관 사이를 달리다 보면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뚝 등장한다. 이곳의 내부는 유엔이 정한 세계 10대 유산 중의 하나로 영화 등의 촬영이 쉽지 않다. 그래도 왕가위 감독은 행운의 도

움으로 애절한 사랑 이야기인 <화양연화>의 마지막 장면, 양조위가 사원의 돌 사이에 무언가를 끼워넣는 장면을 찍었다. 그가 찾아왔던 앙코르 와트의 중앙사당은 힌두의 대서사시를 새긴 우아하고 세련된 부조로 유명하다. 거대한 스케일과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로 정교하게 재현한 힌두 신화와 압살라 조각은 보는 이들의 넋을 빼놓는다.

“순간 흡사 천길 만길 깊은 바다 밑에 잠긴 듯한 폐허는 그 두 백인의 출현에 맥없이 생명을 잃고 현실세계로 떠올랐다. 마치 바닷가 모래언덕에 떠밀린 해파리처럼.” 프랑스의 행동주의 소설가이자 드골 정부의 외무상이었던 앙드레 말로는 젊은 시절 이곳 유적에 큰 관심을 쏟았다. 젊고 야망에 가득 찬 학자가 오랜 경륜의 탐험가와 함께 미지의 밀림 속으로 떠나는 소설 <왕도로 가는 길>의 이야기는 그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불명예스럽게도 그는 유물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가 도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 문제의 장소는 앙코르 와트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반테아이 스레이다. 붉은 사암을 사용해 불그스름하고 독특한 색채로 휩싸인 이곳의 별명은 '여인의 성채'.

앙코르 톰은 '큰 도시'라는 뜻인데, 12세기 후반 자야바르만 7세가 건설하기 시작했던 대규모의 도시 프로젝트다. 한가운데 '아름다운 탑'이라는 뜻의 바이온 사원이 자리잡고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유적이 모여 있다. 높은 성벽 밖으로 인공호수를 파놓아 외적을 방어했고 오직 다섯 개의 성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다. 유명한 남문의 난간에는 54명의 신과 악마가 나란히 서 뱀을 붙잡고 있고, 장대한 코끼리의 조각들이 늘어선 코끼리 테라스도 인기가 많다. 그 모두가 감싸고 있는 바이온 사원에는 거대한 석상이 사방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바로 '앙코르의 미소'로 잘 알려진 얼굴이다. 안젤리나 졸리가 섹시한 근육질의 고고학자로 나오는 영화 <툼레이더>에서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린 사원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곳은 타프롬으로 자야바르만 7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헌사하기 위해 지은 사원이다. 벵골 보리수와 무화과 나무 등 거대한 나무들이 무너진 건물을 비집고 나와 자라난 모습은 참으로 그로테스크하다.

### 국제적 사교 도시

이들 유적들을 찾아가는 전초 기지인 씨엠립은 프놈펜에 이어 캄보디아 제2의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 탐험대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지만, 점차 주변의 유적을 찾는 탐험대와 여행객들을 위한 도시로 성장해왔다. 20세기 들어 찰리 채플린, 재클린 케네디 등이 방문하며 점차 세계인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게 되



1 씨엠립은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을 품고 있는 덕분에 작은 국제도시가 되었다.

2 앙코르 톰의 바이온 사원

3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톤레사프호

었고, 긴 내전을 지낸 뒤에 새로운 영광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앙코르 와트만이 아니라 새로운 유적들이 계속 발굴되면서 다양한 성향의 여행객들을 위한 국제적 사교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거리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현대식 호텔과 상업 건물 사이에는 지뢰 박물관 등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돌아볼 장소들도 있다. 씨엠립에서 가장 활발한 거리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이 어울리는 펍 스트리트다. 최근에는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특유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 전통 무용인 암사라 공연과 더불어 거리의 아이들을 구제하는 파레 뿐르 셀라빠 학교에서 만든 독창적인 서커스가 눈길을 끈다. 단순히 아크로바틱한 묘기를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의 역사와 현재를 잘 녹여낸 구성도 갈채를 받고 있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 사진 한국경제신문





트렌드를 읽다: 캄보디아

## 캄보디아 현지의 브라운 커피 스타벅스를 이기다

캄보디아 고유 브랜드인 브라운 커피가 스타벅스(Starbucks) 등 해외 유수의 브랜드를 제치고 매장 수 1위, 고객 선호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캄보디아의 커피 애호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조업이 전무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158달러(2015년도, 세계은행)에 불과한 후진국 캄보디아에서 독자적인 식음료 브랜드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에 많은 외국인이 감탄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기사로 다뤘을 만큼 화제가 되고 있다.

브라운 커피는 5명의 캄보디아 청년이 2009년에 수도 프놈펜에 설립한 고유 브랜드로 현재 14개 지점, 종업원 수 380명의 유수의 브랜드로 성장했다. 창업자 중 한 명인 창 번리앙(Mr. Chang Bunleang)은 화교로 호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23살에 건축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요리사 등 4명의 친구와 함께 15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브라운 커피를 설립했다. 브라운 커피 매장은 호주 멜버른의 독립 카페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미국, 덴마크, 일본 등에서부터 차용된 세련되고 서구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 특징이다. 커피 및 음료뿐만 아니라 매장에 따라서는 샌드위치, 콘터네티 등 아침식사와 파스타, 햄버거 등 식사 메뉴까지 취급한다. 음료 중에서는 카페라떼, 식사 중에서는 파스타가 최고 인기 메뉴이다. 창업 초기 일일 평균 커피 판매량 100잔에

서 시작해 최근에는 1,500잔까지 증가했고 평균 마진율은 15~20%에 이른다. 향후 영업점 수를 최대 3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인근 국가로의 진출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최초의 해외진출 캄보디아 브랜드가 될 것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벤처캐피털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본의 음료 기업이 지분투자에 관심을 보였으나, 브라운 커피 측에서는 '먹튀'식의 재무적 투자가는 꺼린다고 전했다.

### 주문은 앉아서, 커피도 배달 가능

브라운 커피의 특징은 줄을 서서 주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브라운 커피는 외국기업들이 캄보디아 현지문화를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캄보디아는 레스토랑처럼 종업원이 직접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무료 배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건비가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8달러 이상 주문 시 배달비가 따로 없다. 매장별로 인테리어가 특색이 있는데 서구 브랜드들의 단일화된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달리 매장별로 매장외벽, 내장, 가구, 조명 등이 모두 상이해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즉각적인 고객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도 차별화 전략 중 하나다. 별도의 고객평가 카드나 설문조사 실시 외에 점원이 계산할 때 '커피가 진하지 않았는지?', '우유가 너무 많지 않았는지?' 등의 간단하게 건네는 문의에 대한 고객의 응답을 수집해 반영한다.

브라운 커피 매장은 호주 멜버른의 독립 카페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서구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 특징이다.



브라운 커피 매장

### 캄보디아에 새로운 커피 문화를 일으키다

기존에 캄보디아의 커피 음용 문화는 설탕과 우유를 진하게 넣은 획일화된 방식이었으나, 브라운 커피는 다양한 커피를 캄보디아에 선보이고자 했다. 실제 창업 초기 점원으로 입사한 직원들 상당수가 카페라떼나 카푸치노의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각인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청년 직장인, 외국인, 중년 등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하고 취약한 인터넷 통신망 사정을 반영해 와이파이의 개인당 대역폭을 제한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자신들처럼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직률이 3%로 매우 낮은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직원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급여에서 10%만 상환금으로 공제하도록 한다. 창업자들은 초기 좋은 원두를 찾기 위해 태국과 베트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자체 커피 원두를 구매하기 위해 몬둘끼리 등 캄보디아 지역 농민들과도 만나고 있다. 또 2주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커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비스 교육, 영어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다.

### 프놈펜 중심으로 소비 구매력 증가 중

캄보디아에서 서구화된 개념의 서비스 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태동해 현재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설·금융업 분야에서 증가되는 외국인 투자 등으로 인해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성장 추세에 있다. 수도 프놈펜의 1인당 소득은 3000~4000달러로 추정될 정도로 상당 수준의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재 외국인들의 평가이다. 최근 대형 쇼핑몰이 추가적으로 오픈할 예정으로

수도 프놈펜의 1인당 소득은 3000~4000달러로 추정될 정도로 상당 수준의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외식업, 키즈 카페, 극장, 이미용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서비스 기업이 시장 초기단계에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된다.

캄보디아 진출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시장과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커피전문점 등 외식산업 전반에 대한 다른 시장과의 차이점 이해가 필수적이다. 베이커리, 한식, 치킨 등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의 경우 대다수가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다수 점포 직영을 통한 마스터 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를 통한 간접 진출이 현재 대세로 꼽힌다. 이들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들은 한국 외식 브랜드와의 거래 경험으로 인해 한국 내 다양한 브랜드 업종과 접촉을 통해 사업 확장에 주저하지 않는다. 외식 등 서비스 기업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현지 시장·문화 조사가 필요하며(캄보디아 최대 쇼핑몰인 일본의 AEON MALL의 경우 10년간의 현지조사를 수행했다고 전해짐), 진출 이후에도 초기 낮은 점유율에 쉽게 실망하기보다는 초기에 발생하는 작은 실패사례들까지도 시정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가는 인내력도 요구된다.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이라도 한국에서의 사업운영 표준을 무조건 이식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 운영 방식의 세세한 현지화가 필수다.☺

자료 김동준(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보고서 | 정리 박주연 기자



## 어려운 무역기사 쉽게 읽는 법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인증

최근 외국정부는 자국의 산업보호 차원에서 규격, 인증, 시험검사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강화해 기술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까지 **FDA, CE, CCC** 등 241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2017.02.11. 데일리안)

### ① 미국식품의약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보건후생부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FDA는 1938년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뒤 독립 행정기구로 국민보건의 책임 당국이 되었다. 약품이나 관련 제품의 순도, 강도, 안정성, 효능에 대한 FDA의 기준을 충족해야 수출 및 시판이 가능하다.



### ② 유럽연합 통합규격인증마크 CE(Communaut European Mark);

유럽공동체의 머리글자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유럽시장 내에서 유통될 때에는 CE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시장에 수출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출상품의 비자(visa)로 비유된다.



### ③ 중국의무인증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국내상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와 수입품에 부여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을 2002년부터 하나의 인증제도인 CCC로 통합했고, 이후 유효기간을 거쳐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중국에서 해당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 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 할 경우 제품 통관불가는 물론 벌금도 최고 480만원까지 내야한다.☹



## ASEAN 10개국 경제지표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인구  
약 6억 명



총 교역량  
2조 4,349억 달러  
(수출: 1조 2,808억 달러 / 수입: 1조 1,541억 달러)



GDP  
2조 3,389억 달러



브루나이

171  
39,355  
82  
75  
157



캄보디아

142  
931  
58  
78  
136



미얀마

544  
855  
82  
75  
157



인도네시아

9,283  
3,797  
1,870  
1,785  
3,655



라오스

89  
1,338  
20  
27  
47



말레이시아

3,058  
10,467  
2,470  
1,816  
4,286



필리핀

2,276  
2,329  
463  
615  
1,078



싱가포르

2,700  
50,324  
4,358  
3,749  
8,107



태국

3,772  
5,851  
2,262  
2,178  
4,440



베트남

1,354  
1,498  
1,143  
1,143  
2,286

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수출(억 달러) 수입(억 달러) 교역(억 달러)



## 품질이 곧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무언가를 제일 처음 시작해 그곳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에게 최고의 경쟁력이다. 1974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태동과 함께 특장차 전용 감속기를 시작한 ㈜대덕기계는 선점효과와 틈새시장의 효과를 누리며 44년간 안정기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명품부품을 만들고자 하는 품질에 대한 자존심은 해외시장의 활로 개척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글 김선녀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



특장차용 감속기 전문 기업인 (주)대덕기계는 명품 부품을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품질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대덕기계는 1974년 특장차용 감속기 전문 기업으로 시작했다. 특장차란 말 그대로 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특수한 용도에 쓰는 차량을 말한다.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카고, 모래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시멘트를 넣고 돌리는 믹서트럭, 화재진압용 소방차 등이 모두 특장차에 속한다. 대덕기계는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 특장차용 각종 기어류 및 동력전달장치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용차용 동력인출장치인 PTO(Power Take Off)를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한다. 2007년 2공장 증축 후, 2014년 확장 이전했으며, 60여 명의 직원으로 2016년 매출 140억을 달성했다.

### 선점과 틈새시장이라는 무기

우리나라에서 처음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한 것은 1974년이였다.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를 세상에 내보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해외의 부품을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이었다. 대덕기계의 모태가 된 '대덕상회'가 인천 남구 송의동에 문을 열었을 때가 바로 1974년이였다. 자동차라는 분야도 생소했고, 기술력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태동과 함께 시작한 감속기 제조 사업의 선점 효과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게다가 상용차도 아닌 특장차 전용이라는 특화시장은 특별한 경쟁사를 찾기 어려울 만큼 괜찮은 틈새시장이었다.

“시작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 1985년에 공장을 확장하고, 상호도 대덕기계로 변경했습니다. 1994년에는 남동공단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고, 90년대 말까지 생산라인도 차츰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대덕기계에 급성장 계기가 찾아온 건 2012년 건축붐이 불면서 러시아 경기가 활기를 띄었을 때였다. 건설현장에 필요한 특장차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수출기업으로부터 감속기 제작 요청이 쇄도했다.

“사실 2012~2013년을 제외하고, 매출의 성장이나 하락세가 심하게 요동쳤던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매출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의미기도 하지요.”

### 품질로 인정받은 실력

대덕기계의 첫 수출은 일본의 오퍼에서 시작됐다. 90년대부터 간접수출로 감속기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간접수출기업의 특장차를 사용했던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이다.

“일본 제조 기업은 품질 관리가 상당히 까

다롭습니다. 우리의 제조기술은 대부분 일본에서부터 온 것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으로 우리의 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감속기의 품질은 ‘소음’, ‘누유’, ‘작동불량’이 세 가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하는지에 달려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의 작업이 많은 특장차에서 안전은 핵심 요소다. 소음이 심하거나, 진동 때문에 작업에 영향을 주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제품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중국보다는 품질이 좋고, 일본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죠. 괜찮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 바이어들이 찾는 시장입니다.”

대덕기계의 임광철 대표이사가 추구하는 철학은 ‘품질이 곧 자존심이며’, 제품을 넘어서 ‘명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1974년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필드’를 지키며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있다.

“작년 일본의 거래처 중 하나인 아이치(Aichi)라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 지금까지 3년 정도 저희 제품을 납품했는데 지금까지 공정필드에서 부적합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품질력을 인정받고 타 품목에도 우리 제품을 적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죠.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3년이면 대략 6,000대 이상의 감속기를 납품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개의 불량도 없었다. 대덕기계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저희는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그 관리가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특히 FTA 활용에서 원자재 증빙 등 서류 작업이 용이합니다. 물론 FTA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FTA는 수출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계획생산시스템,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한 치의 오차 없는 품질 등 실패에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 바로 대덕기계가 이끌어온 44년 꾸준한 성장의 비결일 것이다. 공장 사옥 완공과 함께 아이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대덕기계의 새로운 40년이 기대된다.☺

### MINI INTERVIEW

외국인 근로자, **보반광** 사원(베트남)

### 국적이 아닌 능력이 우선입니다



대덕기계에는 지난 2010년부터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총 1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4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거쳐 갔다.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일 잘하는’ 직원, 보반광 씨를 추천해준 박상철 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뽑을 때의 기준에 대한 답변에 ‘능력’이라고 명쾌하게 대답하며, 국적을 따지는 건 편견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온 지 8년 차 된 보반광 씨는 대덕기계에 온 지 3년 정도 됐다. 8년 차 베테랑답게 일은 물론 한국어 실력도 중급 이상이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저나 상대방이나 서로 답답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로 했습니 다. 고용 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수업하는데, 3년 정도 공부했어요.” 베트남에 아내와 올해 네 살이 된 아들이 있는 보반광 씨는 회사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기로 유명하다.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호기심도 많고요. 노력을 하니깐 그만큼 기능이 우수해요. 저나 직원, 사장님도 모두 칭찬하는 직원입니다.” 3년이지만 일주일에 단 2시간의 수업을 통해 배웠다는 한국어 실력만 봐도 그의 성실함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한국의 인기가 좋다고 한다. 그가 한국을 택한 이유 역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주말에는 남동공단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 어울려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동료들 중에는 언어나 회사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많이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런 면들이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차츰 달라진 것과 더불어 보반광 씨 스스로의 노력이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회사에서 ‘일 잘하는’ 우수 근로자로 손꼽히는 그의 꿈은 1년 후 베트남에 돌아가 베트남에 나와 있는 한국 업체에서 일하는 것이다. 누구보다 한국 기업 문화를 잘 알고, 더불어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까지 갖춘 그를 마다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베트남에서 이뤄 낼 그의 비전 가득한 꿈을 응원한다.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터넷 사기 범죄를 비롯해 무역의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 명동 일대의 사이버 무역 사기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 진화하는 무역 사기, 예방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과거의 무역 사기는 물건을 받고, 돈을 떼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정도의 예측 가능한 사기 사건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의 무역 사기는 상황이 다르다. 인터넷 발달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역 사기 수법도 진화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IT 산업이 발달한 한국은 무역 사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예방과 보안의식만이 가장 효율적인 대비책이다.

글 김선녀 기자 | 사진 김가남 기자

### 사이버 무역 사기의 핫 트렌드, 스피어피싱

“무역사기도 진화합니다. 이전에는 팩스 정도 선이었다면,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 국가 간 거래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두 거래처 사이의 정보를 해킹하는 ‘스피어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그만큼 무역사기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그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무역 사기의 방식도 그 만큼 진화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역사기 사건을 해결한 사례로 손꼽힌다. 사이버팀은 무역사기를 포함해 인터넷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랜섬웨어(ransomware), 말웨어(malware),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명동, 동대문 시장, 쇼핑몰 등 무역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관할입니다. 국내거래가 많지만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국외거래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청계천 주변으로 기계나 부품 수입상이 많고, 신당동 부근은 조선족 등 중간중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무역 관련 사기 사건이 늘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특히 해외 무역사기는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데, 그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무역사기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해당한다. 그 중 대표적인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해커의 공격 수법 중 하나로 물속에서 작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작살 낚시(spearfishing)에서 유래한 용어다. 지난 10년간 일어난 스피어피싱 사건 가운데 검거된 사례는 단 3건 정도로, 범인을 찾아 내기가 매우 어렵다.

“해커들이 수출입 업자가 이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장기간 서치해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 뒤 해외에 개설한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무역대금을 가로챍니다.”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의 황지성 형사는 스피어피싱은 특정 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기업이나 사람으로 가장한 후 송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피해기업이 범죄로 의심하기 쉽기 않다고 설명한다.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채는 것 외에도 물품의 인도 장소를 변경해 물건만 갖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해커가 아니더라도 중간운송인 가운데 대금이나 물건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다.

### IT 기술력 만큼 성숙된 보안의식 필요

“사이버 범죄 중 무역사기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자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뛰어난 IT기술 덕분에 사기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만,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안의식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스피어피싱은 주로 거래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액을 보상받는 선에서 해결하는 편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다. 비교적 영어 능력이 부족해 대응력이 낮고, 온라인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이나 작은 무역회사의 경우 무역사기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반 이상 정도로 예상됩니다. 발생 후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사례가 더 많지만, 예방이라는 효과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황지성 형사가 조언하는 예방법은 먼저 거래처에서 주고받는 최신 이메일 주소의 뒷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다. 스피어피싱은 이메일의 중간이나 뒷부분을 교묘하게 바꿔 거래처에서 메일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이다. i를 l로 바꾼다거나 두 스펠 사이에 ‘을’ 넣기도 한다. 두 번째는 모르는 발신자가 보낸 메일에 첨부된 pdf 또는 zip 파일은 열지 않는 것이다. 생각 없이 눌렀다가 모든 정보를 노출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최신보안패치 다운로드를 생활화하는 것도 기본이죠.” 스피어피싱의 예방법은 영어능력이 출중하거나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칙들이다. 무역사기는 능력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보안의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랜섬웨어 역시 신중 온라인 범죄 중 하나로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중 하나다.



###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이 제안하는

#### 무역사기 예방법

- 거래처 이메일 주소 꼼꼼하게 확인하기
- 출처불명 이메일의 첨부파일 클릭하지 말 것
- SNS에 개인정보 공개하지 말 것
- 최신 보안패치 다운로드 생활화



“랜섬웨어는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문서 등을 암호화하여 열지 못하도록 만든 후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준다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스피어피싱과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역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밖에 웹사이트 광고 업데이트 서버에 악성코드를 침투시키거나 토렌트, P2P 등 공유파일을 통해 유포되기도 하며, 스미싱, 메신저 등 스마트폰에 가짜 앱을 통해 설치되기도 한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무역사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 역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안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전 대륙으로 확장해나가던 우리나라에게 터키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였다.



# 형제의 나라와 FTA 4주년을 맞이하다 상품 먼저, 서비스 및 투자는 다음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가장 큰 규모의 파병을 결정하고 한국을 도왔던 형제의 나라 터키.  
터키와 한국은 2017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했으며 5월 1일자로 한·터키 FTA 발효 4주년도 함께 맞이했다.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협정을 동시 발효했던 다른 대부분의 FTA와 달리 두 분야의 FTA에 시차를 두고 발효해야했던  
한·터키 FTA 히스토리를 회상해본다.

## ‘평화’에서 ‘공영’으로 터키와의 FTA를 추진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다섯 살의 전쟁 고아 김은자의 손을 잡았던 파병 터키군 숄레이만 하사관,<sup>1</sup> 2002년 한일월드컵 3·4위전이 끝나고 차두리와 어깨동무를 했던 터키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하칸 쉬퀴르,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2012년 3월 26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울라얀 터키 경제부 장관이 다시 손을 맞잡았다. 바로 양국 간 FTA가 서명 자리로써, 평화를 위해 함께했던 형제국가가 반세기

조금 지난 시점에 양국의 경제 공영을 위한 형제로 새로이 거듭나는 장면이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들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전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던 우리나라에겐 가장 중요한 교두보였던 것이 바로 터키다.

## 이번엔 한국이 터키를 돕다?

터키는 국토 대부분이 서아시아에 위치해있고, 국민의 97%가 무슬림이다. 지리적, 종교적으로는 아시아,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중동에 가까운 터키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의 터키는 유럽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EU 가입에는 성공하지 못한 터키라고는 하지만 – 게다가 현 에르도안 정권 하에는 EU 가입에 특히나 많은 장벽들이 남아있어 보이지만 – 지난 1995년 3월 EU와 관세동맹을 이미 체결, 같은 해 12월 EU 의회의 인준을 받아 1996년 1월 1일부터 EU와의 관세동맹이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부터 터키는 EU 회원국들과의 관세장벽이 제거됨은 물론, 제3국에 대한 대외관세는 EU의 대외관세를 공동으로 적용하는 첫 국가로 자리매김했다.<sup>2</sup>

이렇게 되자 이번엔 반대로 터키가 한국의 지원에 다급해졌다. 그 이유는 터키와 EU의 관세동맹 이후 터키의 대외경제정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EU의 그것을 따라야 했고, 따라서 EU가 자신들의 FTA 체결국들과 무관세 혹은 특혜관세로 교역할 경우, 터키는 그들과의 FTA를 발효시킨 상태가 아니기에 여전히 수출에 장벽이 존재하는 한편, EU의 대외정책에 종속되어 해당 국가들에 터키 자국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해야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까닭이다. EU의 FTA 체결국들을 중심으로 터키가 서둘러 FTA를 맺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과의 FTA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U가 한국과 FTA를 2011년 발효하면서 터키 역시 한국과의 FTA는 더 이상 미루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터키와 EFTA 간에 1992년 4월 발효시킨 FTA 정도를 제외하면, 터키가 발효시킨 모든 FTA가 1995년 EU와의 관세동맹 이후에 맺어졌고 그 대부분의 상대국들이 EU의 FTA 상대국들과 중첩된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발효

까지 약 23개월, 불과 4차례의 신속한 협상(상품)만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배경에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결국 한·터키 FTA는 상품 따로 서비스 따로

한국과 터키 간 FTA 발효일 당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품협정이 먼저 발효되었고,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은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상품협정과 서비스 협정이 따로 발효되었던 사례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FTA를 제외하면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모델이다. 이 또한 아세안은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또는 양허가능 수준이 상이했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지만, 터키에게 같은 변명을 인정해주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왜 한·터키 FTA는 상품협정과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나눠 발효하게 되었을까? 이는 역시 한·EU FTA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EU가 2011년 FTA를 발효하게 되면서 터키는 한국에게 일방적 시장개방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그 때문에 우선 상품협정을 발효시켜 위와 같은 난감한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했다. 2013년 5월 한국과 상품에 한해 FTA를 우선 발효하면서 터키는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서비스 및 투자협상을 타결하기로 우리와 합의했다.

한국과 터키는 이후 합의한 대로 서울과 앙카라를 오가며 한·터키 FTA의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을 착실히 진행, 2015년 2월 정식 서명에 이르렀다. 상품에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양국 간 FTA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과 터키 간의 FTA는 상품협정과 서비스·투자 협정 간에 무려 1년 9개월여의 공백기가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터키에게 있어 한국과의 FTA는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최초의 FTA라는 사실이다. 물론 동등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으로써는 60여 년 전 큰 은혜를 일부 갚은 셈이 되었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sup>1</sup> 2017년 3월 6일 방영 (MBC 스페셜) 참고.  
<sup>2</sup> 하지만, 터키가 EU에 정식 가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터키는 유로화를 정식 화폐로 채택하지 못했으며 EU 회원국에 노동,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해당국의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주간경향,「[경제]한·EU 지리적 표시제에 '미국 편측」(2011) 참고.





## 다양한 인증제도 실시하는 중국, 업종별로 핵심 인증 반드시 취득해야

중국 해관정책 개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 내에 중점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1100원대 봉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원·달러 환율 역시 수출중소기업에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들로부터 167건의 대중무역 애로사항을 접수받았는데, 이중 통관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계약지연이 47건, 대금지연이 8건, 불매가 3건, 기타는 35건이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통관 지연과 통관불허, 검역당국의 검역지연과 불승인, 중국기업의 기존계약 미 이행·파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국은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을 빠르게 늘리며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신흥국 역시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기계·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각종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 중국 해관(海關)정책 개혁과 기업 내 중점 관리항목

중국 해관정책 개혁으로 중국은 현재 '일체화 통관, 2개 센터, 3가지 제도'라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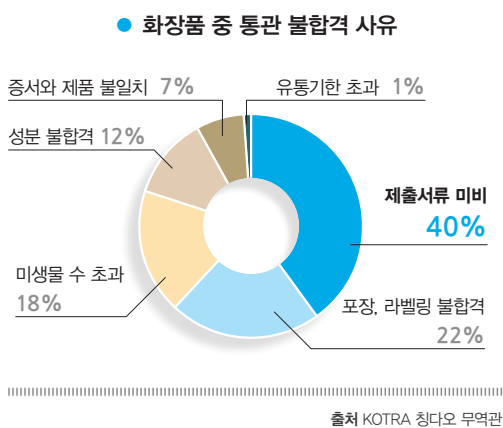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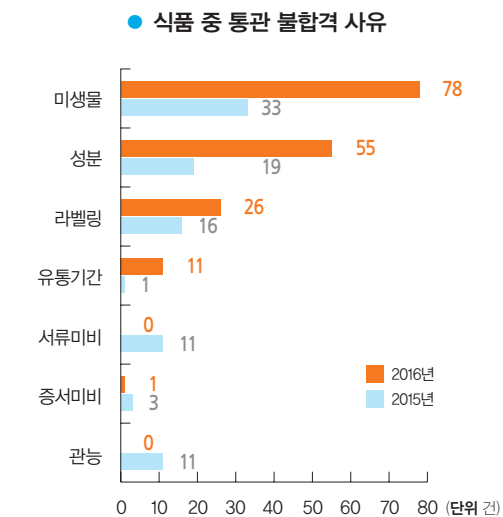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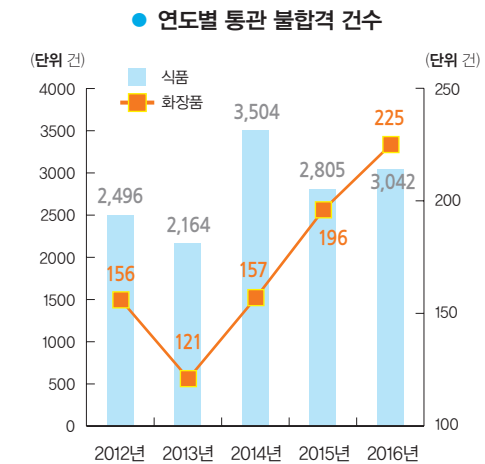
**일체화 통관:** 일체화 통관은 중국 전국의 해관에 동일한 기준, 동일한 절차, 동일한 규정으로 통관 업무를

를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5개 해관구역이 각각 다른 기준, 절차 및 규정으로 통관을 실시했다. 기업이 어떤 해관에 수출입을 신고하든 상관없이 기준, 절차, 규정이 동일해 통관이 더 편리해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원가가 절감되고 있다. 2016년 6월 상하이 해관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전국에 '일체화 통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2개 센터:** 중국 해관총서는 상하이시에 리스크 관리 센터, 세수징수 관리센터를 설치하였다. 리스크 관리 센터는 주요 전국 해관의 리스크 정보 수집·정리, 보고를 포함한 리스크 정보 집중관리, 리스크 예방 정보 적시 발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세수징수 관리 센터는 주요 상품과 업종에 따른 화물의 품목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세수 관련 요소를 심사하고 있다.

**3가지 제도:** 첫 번째 제도는 '일차 신고, 단계별 처리' 통관관리 모델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업은 한 번에 화물의 납세신고수속을 밟은 후 해관은 우선 입항지에서 검사 여부를 확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화물의 신고수리를 하며, 이차적으로는 납세관련 신고요소에 대해 사후심사 등의 수단으로 세수의 납입을 감독한다. 두 번째 제도는 세수의 징수관리방식 개혁이다. 기업이 사실대로 규정에 맞게 신고의 책임을 지고 기업은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해관은 기업의 신고를 수리하며 화물의 신고수리 전에 인보이

### 변화하는 인증 정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스별로 심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세금징수에 대해 사전 리스크 분석, 신고수리 전 검사, 신고수리 후 집중 심사, 사후심사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 세 번째 제도는 협업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이다. 업무 조정을 거쳐 입항지 해관은 주로 통관현장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소재지 해관은 주로 기업 사후 심사와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서 '성실신용장려, 불성실 처벌징계'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1년간 해관 사후심사 시범 기간에 1048개 기업이 기업 내에 관련 문제를 해관에 자진 신고해 추정된 세금이 약 3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해관개혁은 세금징수 방법의 사전과세에서 추징중심으로서의 전환이며,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관리 책임이 높아지게 된다. 기업은 내부관리 강화를 통해 해관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리스크 통제수단을 제대로 가동하게 해 점점 엄격해지는 중국 해관의 사후심사제도에 대응하고 정상적·합법적인 기업영업을 해야 한다.

### 정책 변화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 보 건식품, 약품, 의료기계, 식품을 관리하고 있어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 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또,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전기전자·페인트·자동차·기계·소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 중국에 지정시험소 170여 개, 지정인증기관 22개가 있다. 186개 한국기업이 3249개의 유효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공업품·생활소비재·위생용품·주방용품 등 기타 용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기관(CMA, CNAS) 명의로 발급해 주는 표준보고서를 받아야 통관 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사전에 규정에 대한 확인, 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중국 내 대리인을 선정, 입항지 관행 파악 등 전략적인 대응 조치를 진행해야 통관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글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 제품의 주요 특징만 모방하는 지능적 짝퉁 증가 입체상표 등록으로 제품을 무한정 보호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형상이나 모양을 디자인권이 아닌 상표권으로 보호받고자 시도한다. 디자인권은 보호기간이 국가별로 통상 10~20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하므로, 자사 제품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입체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다. 2001년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라 입체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미 많은 인지도를 확보한 제품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사 제품을 입체상표로 무한정 보호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Chivas Holding社の '로얄 살루트' 위스키 제품은 중국 법원에서 입체상표로 보호받은 첫 사례가 되었다.

### 사건의 개요

원고 Chivas Holding社は 시바스(Chivas) 형제가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위스키 제품을 헌정한 것으로 유명한 일화를 갖는, 스카치 위스키 유명 브랜드인 '로얄살루트(Royal Salute)'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로얄살루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널리 알려진 위스키 주류 제품의 브랜드이며, 해당 위스키 제품의 병 모양은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병 모양만 보고도 해당 위스키의 브랜드가 로얄살루트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다. 원고 Chivas Holding社は 위스키, 와인 등의 주류 상품에 관한 입체상표를 중국에서 신청하였으며, 로얄살

루트 위스키 제품의 병 모양과 형상이 동일한 4가지 입체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들 Yantai AoWei社와 Yantai Chivas社は 연태시(烟台市)에 위치한 위스키 제조 및 판매업체로, 자신들의 위스키 제품 브랜드인 'Elysee 21 YO'라는 표장을 표시한 위스키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로얄살루트 제품과 형태, 모양, 라벨, 패키지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

### 로얄살루트만의 독특한 패키지 인정받아

원고는 2014년 12월 26일 피고들을 상대로 무한(武漢)시 중급 인민법원에 입체상표권의 침해 및 유명 상

### ✦ 제품 및 패키지의 모양과 형상 ✦



원고 제조 판매 위스키



피고들 제조 판매 위스키

품의 특유 포장 장식 등을 모방한 부정경쟁행위 침해에 따른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무한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인 로얄살루트가 아닌 자신들만의 상표인 'Elysee 21 YO' 사용하며 세부적으로 병의 모양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침해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상표법 상 원고의 입체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위스키 제품의 병 모양과 피고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위스키 제품의 병 형태를 비교하였고, 사소한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동일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로얄살루트 위스키 제품이 오랜 역사를 가지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판매되었고, 해당 제품의 평판과 명성을 위하여 원고는 광고와 홍보에 많은 투자를 했으므로, 로얄살루트 위스키 제품은 저명한 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고, 제품 패키지 포장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출처 표시와 특별한 패키지 형상으로써 차별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침해 위스키 제품 패키지 포장이 원고의 것과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가 그에 따른 제품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무한시 중급 인민법원은 2016년 4월 6일 피고들에게 해당 침해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를 금지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액으로 500,000위안(한화 약 8천만원)을 산정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무한시 중급 인민법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절강성 고급 인민법원에 특별한 증거나 쟁점 없이 1심 주장을 그대로 하여 항소하였으나, 절강성 고급 인민법원은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입체상표로써 무한정 보호받도록

중국의 일명 '짝퉁' 제품들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먼저 정품의 모양에서부터 브랜드, 제조업체, 포장 형태 및 색깔까지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만드는 쪽과, 정품에서의 주요 특징적인 부분만을 카피하고 나머지는 유사하게 지능적으로 모방하는 쪽이다. 현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능적으로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을 카피·모방하는 쪽인데, 제품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모방하는 '짝퉁'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당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에도 특징적인 모양과 형상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적인 모양과 형상의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형상 및 포장에 관하여 우선은 중국 디자인전리권으로 보호해야 하겠지만 그 보호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광고와 홍보를 통하여 중국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입체상표로서 그 권리를 인정 받아 무한정 기간 동안 제품의 특징적인 형상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 사전준비 단계: HS code(품목번호) 확인하기

두 가지 이상의 HS 코드 분류가 가능할 땐  
수입국 기준으로 확인

지난 2번의 연재를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전반적인 개요만 제시한 총론이었다면,

앞으로는 각 절차별로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각론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I. 사전준비 단계

- ① FTA 협정국 확인하기
- ② HS code(품목번호) 확인하기
- ③ 양허품목 여부 및 양허세율 확인하기
- ④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하기

## II. 서류준비 단계

- ⑤ 원산지증명서류 준비하기
- ⑥ 원산지 판정하기
-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하기

## III. 사후관리 단계

- ⑧ 서류보관 및 관리하기
- ⑨ 사후검증 대비하기

FTA 활용에 있어 9가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I. 사전준비 단계 II. 서류준비 단계 III.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했다.

## 품목분류란?

품목분류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율 결정을 주목적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에 해당하는 하나의 HS code(품목번호, 세번부호, 세번)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러한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될 세율과 수출입 절차 등이 정해진다.

## 품목분류는 왜 어려울까?

모든 물품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재질·가공도·용도·주기능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품과 관련된 학문분야와 전문용어 등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현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신상품이나 융·복합물품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추상적인 규정들로 인해 이에 대한 해석이 사람과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품목분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FTA 활용과 품목분류의 상관관계

하나의 HS code에 하나의 관세율만 정하고 있다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지금처럼 애쓰는 일도 없을 것이다. FTA를 체결하는 주목적 중 하나가 바로 계약국 간에 더 낮은 관세율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여러 가지 협정들과,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각 물품별 세율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 품목분류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FTA 별로 각각의 HS code에 대해 양허대상, 양허유형 및 세율,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출입 되는 물품의 HS code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구성하거나 해당 물품의 제조를 위해 투입된 원재료의 HS code까지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수출물품의 FTA 활용 시 HS code는 수입국 기준

그렇다면 품목분류는 무조건 어려운 것일까? 이처럼 어려운 품목분류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실무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빈번한 물품의 경우 별도의 4단위 호를 마련해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만 가지고도 품목분류표에서 HS code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다수이고, 통상적으로 지속 거래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관련하여 누적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적정한 HS code를 찾아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대행한다. 다만, 일견 하나의 물품이 두 가지 이상의 HS code로 분류될 수 있는 소위 '경합 세번'이 존재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품목분류 사전심사)을 받아 결정된 HS code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수입국이므로 수입국 과세관청의 견해가 중요하다. 이는 앞서 말한 일부 품목분류 규정의 추상성으로 국가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유권해석을 받은 HS code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FTA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계약상대국인 수입국에서 다른 HS code로 판단한다면 HS code 기재 오류로 동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FTA 활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수출물품에 대한 FTA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입국 바이어에게 종전 수입 시 신고했던 HS code를 문의하여 국내의 업체에서 관리하는 HS code와 차이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 HS code 어디서 확인할까?

수출입과 관련하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는 기본적으로 1)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는 거래 관세사에 문의하면 된다. 2) 다만, 위와 같이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한 경우이거나, 경합세번이 존재

하는 등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을 하거나, 3) 수입국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 만약 신생 업체이거나 거래하는 관세사가 없는 경우에는

- ① 관세청의 고객지원센터(☎125, <https://call.customs.go.kr/crmcc/index.jsp>) 또는
- ②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1566-5114, [http://tradesos.kita.net/trade\\_sos/tradesos.jsp](http://tradesos.kita.net/trade_sos/tradesos.jsp))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HS code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선 또는 인터넷 상담 등 원격으로 진행하는 분류이므로, 쟁점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이 경우 직접 확인을 원한다면

-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 ② 트레이드내비 (<http://tradenavi.or.kr>)에 접속하여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 HS code 확인 범위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 사용되나, 6자리 이후부터는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뒤에 4자리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를 사용하며(HSK), EU 8자리(한·EU FTA 양허표 기준), 미국 8자리(한·미 FTA 양허표 기준), 중국 8자리(한·중 FTA 양허표 기준)를 사용하며, 참고로 일본은 9자리까지 사용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6자리까지만 확인하면 되지만, 해당 국가에서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체 HS code(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별로 체계가 상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입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전체 HS code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책임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적으로 수입국의 바이어에게 확인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글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 같은 지역에서 커피를 수입했는데, 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관세는 분류의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관세율은 각 국가마다 정해져 있는 법령상의 적용 우선순위, 국제조약, 거래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등 요건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 수입자 C, D씨는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를 수입했다. 모두 브라질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커피인데 C씨는 8%의 세율을 적용받은 반면, D씨에게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C씨는 브라질 현지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바로 수입했으며, D씨는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 생두를 미국으로 운송해 로스팅한 다음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즉, C씨의 커피는 브라질산으로 기본관세율 8%, D씨의 커피는 미국산으로서 한·미 FTA에 의해 0%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관세율 적용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동일 품목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존재하다 보니, 실제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관세율은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여러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관세율의 경합이라고 한다. 이 경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하나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 종류	비고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최우선 적용
2	FTA 세율	3, 4, 5, 6, 7순위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
3	국제협력관세(양허관세) 편입관세	4, 5, 6, 7순위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 (다만,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는 6, 7 순위 보다 우선하여 적용)
4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5, 6, 7순위 보다 우선 적용 (다만, 할당관세는 5순위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GSP)	6, 7순위 보다 우선 적용
6	잠정세율	7순위 보다 우선하여 적용
7	기본세율	

최우선 적용되는 관세율은 1순위 관세율로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이다. 이러한 세율은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덤핑이나 보조금 등 불공정하거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등 긴박한 상황에서 수입을 조절하기 위해 적용되는 특별관세율이다. 다음으로 우선 적용되는 2순위 관세율은 FTA 세율이다. 현재 발표된 15개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 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게도 친숙하다. 협정관세로서 WTO일반양허관세, WTO개도국간 양허관세(TNDC), 아시아·태평양협정양허관세(APTA),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협정관세(GSTP),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와 조약에 의해 편익을 받지 않는 국가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편익을 부여하는 편익관세는 3순위로 적용되고 있다.

계절, 특혜국가, 특정물품에 따라 관세 적용 달라져

뉴스를 보다보면 조정관세, 계절관세나 할당관세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관세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조정관세율에 해당되고, 계절적인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여 관세율에 변화를 주는 것이 계절관세이다. 그리고 일정수량을 설정하여 관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이 할당관세이다. 올해 초에는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달걀의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일정수량 이내의 수량에 대하여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물품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거나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일정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추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율이 4순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그리고 일반특혜관세로서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5순위, 특정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본세율을 수정한 잠정세율은 6순위에 해당하며 기본세율은 관세 적용시 가장 최하위 순위에 있는 관세이다.

## 브라질산 커피 수입 관세율, 왜 달랐을까?

커피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커피(HS 0901.21-0000)를 수입할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기본세율 8%, WTO 협정세율 29.5%, FTA 세율 0% 등이 있는데, FTA 세율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미국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수입한 D씨의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한·미 FTA 세율 0%이다. 미국산이 아닌 브라질산 커피를 수입한 C씨의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8%가 적용된 것이다.

국문		영문	
0901	카피(복사)지, 카피용 재가해진자재 상관없다), 카피의 접착기와 접합, 카피를 포함한 카피 내용물(카피의 포함물은 상관없다)	G901_21-0000	중합단위식 K8
1	카피(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Description	Not decalfrained
11 00 00	카피용 재가해진 것은 것	한 산 지	한 산 지 한 세
12 00 00	카피용 재가해진 것	기판층(A):	2%
2	카피(부분적으로 한정한다)	WTO발생층(C):	2%, 5%
21 00 00	카피용 재가해진 것은 것	절연(FCL):	7%
22 00 00	카피용 재가해진 것	내배선(PAS):	6% (가동물질: 금속 필러인)
90	카피	실리카포도(FSG):	6%
1000	카피의 접착기와 접합	EFTAF(EF):	6%
2000	카피를 포함한 카피 내용물	연도(FTH):	4%
		EU(FEU):	6%
		금속(FPE):	6%
		금속(FPE):	6%
		다이(FTH):	6%
		오각(FAU):	3.4%
		폴리(FCAI):	3.2%
		중합체(FCOI):	6%
		금속(FCH):	3.2%
		비닐(FVNI):	6%
		뉴클레오타이드(FNZ):	4.5%
		FTA분류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가령, D씨가 한·미 FTA 원산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FTA세율을 포기하고 기본관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관세율은 각 국가마다 정해져 있는 법령상의 적용 우선순위, 국제조약, 거래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등 요건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품목의 관세율이 몇 %라고 숙단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국가들 역시 각종 세율을 병용하고 있다. 세계주요국가의 관세율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 조회는 화면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한 후 원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의 세율 상호간의 우선관계 역시 원칙적으로 협정세율이 국정세율보다 낮을 때는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협정세율이 있더라도 국정세율이 낮으면 국정세율을 적용한다. 국정세율 중에서는 잠정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을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FTA NEWS

##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 3국 간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중일 3국 협상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에 서 협상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2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우리는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했다. 이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주요 경제대국인 3국이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제12차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지난 협상 때 논의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지재권·정부조달·경쟁 등 분야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3

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3국간 이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접근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는 등 논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3국간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는 등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기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추진과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4월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와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의 무역협정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와 GDP의 76%(2.7조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그간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공청회 주제 발표에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메르코수르와의 FTA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개최

상품, 규범 등 상당부분 진전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 제4차 협상이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이스라엘측은 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4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TBT, SPS, 지재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전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한·이스라엘 FTA 체결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교역, 투자, 인적교류, 기술협력에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리 박주연 기자 | 사진 한국경제신문



이달의 FTA 행사 및 해외 전시 정보를 소개합니다.



## 뉴질랜드 해밀톤 농업박람회

일시 : 2017. 06. 14 ~ 2017. 06. 17



개최 국가 : 뉴질랜드(해밀톤)

전시분야 : 농산물, 농기계, 농업 관련 비료 및 화학,  
농업 관련 운송수단 등

이메일 : marcelom@mysterycreek.co.nz



## 2017 유통 아시아 엑스포

일시 : 2017. 06. 13 ~ 2017. 06. 15

개최 국가 : 홍콩

전시 분야 : Back Office Software / Barcode Scanners /  
Computer Hardware 등

홈페이지 : www.retailasiaexpo.com

이메일 : jim@retailasiaexpo.com



## 독일 빌링엔슈베닝엔 상용장비 및 소비재 박람회

일시 : 2017. 06. 10 ~ 2017. 06. 18

개최 국가 : 독일(프랑크푸르트)

전시분야 : Agriculture, Building and Construction,  
Building Machines 등

홈페이지 : www.messe-vs.de

이메일 : info@messe-vs.de



알림

###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FTA〉가 2017년부터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메일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ksn@hankyung.com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연말에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함께하는FTA〉를 보신 소감은?
- 〈함께하는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 〈함께하는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ksn@hankyung.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60-4810



##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 발효국가

❶ 한·칠레 FTA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❷ 한·싱가포르 FTA  
ASEAN 시장 교두보

❸ 한·EFTA FTA  
유럽시장 교두보  
\*EFTA(서유럽 경제 연합체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❹ 한·ASEAN FTA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❺ 한·인도 FTA  
BRICS국가 거대시장

❻ 한·EU FTA  
세계 최대 경제권  
(GDP 기준)  
\*EU(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❼ 한·페루 FTA  
중남미 진출 교두보

❽ 한·미국 FTA  
거대 선진 경제권

❾ 한·터키 FTA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❿ 한·호주 FTA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⓫ 한·캐나다 FTA  
북미 선진시장

⓬ 한·중국 FTA  
우리의 제1위 교역  
상대국 (2015년 기준)

⓭ 한·뉴질랜드 FTA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⓮ 한·베트남 FTA  
우리의 제3위  
투자상대국

⓯ 한·콜롬비아 FTA  
중남미 신흥시장

### 서명/타결 국가

❶ 한·중미 FTA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SICA(중미통합체제 국가 중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협상 중 국가

❶ 한중일 FTA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❷ 한·RCEP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❸ 한·에콰도르 SECA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❹ 한·이스라엘 FTA  
창조경제 모델국

### 재개, 개시, 여건조성 국가

❶ 한·멕시코 FTA  
북중미 시장 교두보

❷ 한·EAEU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❸ 한·GCC FTA  
자원부국, 기업 선호도 1위  
(2015년 기준)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❹ 한·MERCOSUR FTA  
남미 최대시장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출이 궁금해?

1380

수출안내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든,  
FTA 활용부 수출 및 해외투자정보,  
수출거래지원, 금융지원체계 구축등  
수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